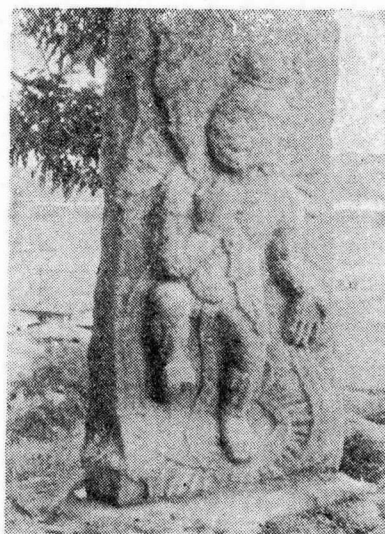


들은 경주 芬皇寺塔以來의 傳統的手法(安東 一直面五層塔塔龕室入口左右의 仁王板石等)을 따르고 있어 그에 속하던 遺品으로 推定하고저 한다. 특히(其一)은 保護할만하다(九月二十三日 調査)

註 ① 이 石物은 馬鬪樹氏夫人이 調査한 바 있어 그의 敎示에 따르는 것인데 이 곳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.

② 이 곳에는 羅代의 石燈 佛座石材들이 庭中에 散亂하고 있는 바 모두 收拾되어야 할 것이다. 西岳寺의 舊基라고 傳한다.



青花白磁詩銘瓶

孟 仁 在

長頸式瓶이며 등치는 鈍重한 球形、頸部는 힘이 빠져 이런 類의 瓶이 갖는 典型을 看取하긴 어렵다. 釉面도 潤氣가 不足한 不透明靑白色이며 黃褐色釉裂이 등성등성하여 一見末期의 粗作인 것도 알 수 있다. 그러나 이 같은 缺點때문에 이 瓶의 格調가 형편 없이 깎이지는 않는다.

등치 兩面에는 畵된 栢榴折枝가 한개씩, 그리고 이들 가지에는 열 것으로 보이는 매미가 한마리씩 그려져 있다. 나무의 輪廓은 濃靑、잎과 栢

榴는 淡靑 栢榴알은 鱗魚처럼 淡靑으로 돌리고 그 안에 辰砂를 點綴했다. 이

辰砂의 發色은 鮮明하여 栢榴알은 반짝

빛나고 매미와 더불어 季節의 情趣를 자

아닌다. 鈎勒填彩式이라고 할이 그림

은 陶工들의 손을

通해서 되풀이 되는 동안 얻어진 非專門的인 形式이며 그림 밑에 쓰인

다음과 같은 行書 五言詩의 筆者는 時代觀照에 敏感한 別個의 人物이었

을 것이다.

隨時樹陰間 蟬啼淚難看

青花빛갈의 濃侈、形狀의 解弛가 製作年代를 스스로 말하지만 이런 類

의 瓶으로서 는 보기드문 詩句를 그와 같은 時期와 結付시켜 吟味해도 不

自然하진 않을 것이다.

分院末期의 衰退한 作風에 傳統的 窯業의 終焉을 目前에 그려놓은 것

같은 時代色이 짙은 佳作이다. 높이 一〇.五cm(全忠信氏藏)

堤川 月岳山 德周寺址의 調査

鄭 永 鎬

德周寺의 記錄은 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 忠州牧佛宇條①에 보이는 바 이 古刹은 六·二五 動亂時 全燒된채 아직 重建되지 못하였다. ② 忠北 堤川郡 寒水面松界里 月岳山 中腹의 寺址③에는 磨崖石佛等 數點의 遺

